

광주청년작가문학포럼으로 본 미래문학

문화향기

박관서
시인



지난달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에서 제9회 세계한글작가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그동안 주로 서울과 경주를 오가며 열리던 세계한글작가대회는 이번에 최초로 광주에서 개최되었다. '한글, 세계와 화합하다'를 주제로 열린 대회에서는 맨부커상에 이어 메디치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우리나라 최초의 밀리언셀러가 된 장편소설 '인간시장'의 김홍신 작가, 그리고 최근 '제주도우다'를 펴낸 현기영 작가, 몽골의 불강타미링 바르체체 작가를 비롯해 한국의 대표 문인과 주요 문학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특별강연 및 주제발표를 통한 토론 등이 펼쳐졌다. 특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린 개막식에는 국내외 문인, 학자 등 약 800여 명의 인파가 몰려서 문학행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는 '한글을 통한 세계와의 화합'이라는 행사주제를 그대로 구현한 셈이었다. 한글이 단순히 문자로서의 기호를 넘어서 문학과 언어 그리고 한민족과 세계라는 경계와 장벽을 넘어서는 매개체로 구현된 셈이었다.

그렇듯이 이번 광주에서 진행된 세계한글작가대회는 기존의 국제문학행사의 성격을 넘어 "한글의 우수성을 홍보함은 물론 광주의 청년작가들이 세계와 교류

함으로써 광주문학이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청년작가와 미래문학에 대한 주제를 분명히 하였고 또한 기존의 세계한글작가대회 프로그램에 더하여 '광주 청년작가 문학포럼'이라는 라운드 문학포럼을 따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서 이를 진행한 필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청년작가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 최근 늘어난 법정 청년 나이를 19세에서 39세까지로 감안하더라도 이 나이 때의 문학작가 자체가 별로 없었다. 아니 사실 거의 희박한 것이 지역 문학계의 현실이다. 물론 이는 문학만이 아니라 학습과 첫걸음을 떼는 직장생활 적령기에 필요한 사회체계 자체가 부족한 지역의 전반적인 현실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광주청년작가문학포럼은 지역 문학생태계와 관련한 청년작가의 상황 점검과 함께 이를 통해서 미래문학을 전망해보고자 하는 세부목표를 정했다. 이처럼 '문학 너머의 문학'을 전망하고자 하는 목표를 통하여 청년 참여작가 40여 명을 모집하여 그들이 쓴 작품집을 간행함은 물론 문학포럼 등의 행사를 통해 우선 지역의 청년작가를 중심으로 그 룹화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이에 최근에 개관한 광주문학관에서 진행된 광주청년작가문학포럼에는 약 100여 명이 웃도는 지역의 청년작가들이 모여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린 문학토론의 장을 연출하였다. '제1주제, 광주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

리 지역의 원로작가인 문순태 소설가가 '5.18 소설, 내일의 과제' 기초강연을 하였고 소설가인 이기호 광주대교수가 '광주 옆자리'라는 기초발제를 하였다. 이에 더하여 해외 유학생관리시스템(전남대학교 강단비 교수), 광주에서 평론가로 살기(조선대 김주선 문학평론가), 세계청년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학교육(동신대 박경자 교수) 등의 발제를 중심으로 문학포럼이 진행되었다.

또한, 주제발표 2에서는 '광주청년작가포럼-문학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독립책방, 마주침의 공간' 송기역(시인, 기억책방 대표), '2023 문학은 어디로 가는가' 이민우(문학신문 뉴스페이퍼 대표), '로컬문학장의 재구성'에 대한 소고' 박일우 소설가(광주전남작가회의 젊은작가포럼 대표), '국제PEN과 번역사업' 이상환(시인, 광주펜 세계한글작가대회 사무처장), '놀이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문은희(시낭송가, 놀이세상 시옷 협동조합 대표), '축제로서의 아시아 문학과 새로운 전망' 김호균(시인, 전 아시아문학페스티벌 집행위원장), '전업작가의 삶' 임지형(동화, 청소년소설 전업작가), '광주 스토리 산업' 이상용(스토리산업, 광주문화산업정보진흥원 문화콘텐츠 팀장) 등의 발제로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분행사를 통하여 '인공지능(AI)과 문학산업', '한국 문학과 청년, 미래 문학을 말한다' 등의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우리 지역의 청년작가와 미래문학의 향방에 대하여 충분한 점검과 전망을 짚어본 것으로 자평된다.

社說

기대되는 전남 에너지 '전력 고속도로'

수도권 무탄소전력 공급 최적

정부가 '서해안 해저 전력 고속도로'를 건설해 남아도는 전남 재생 에너지를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급키로 했다. 오는 2036년까지 해저에 초고압직류송전(HVDC)을 깔아 반도체 공장이 밀집한 수도권 첨단전략산업 단지에 무탄소 전원을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서해안 HVDC는 신해남~태안~서인천을 거치는 구간이 430km, 새만금~태안~영흥구간이 190km에 이른다. 총비용은 7조 9000억 원, 수송 능력은 8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봤다. 호남 지역에는 한빛원전 1~6호기(5.9GW)와 전국 비중 42%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이 포진해 있다. 호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20년 6.2GW에서 올해 9월 10.4GW까지 뛰어올랐다. 전력 수요가 낮은 호남에서 쓰고 남은 전력을 수도권 등으로 운반해야 하지만, 호남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선로는 신옥전-세종(345kV)과 청양-신양정(345kV) 등 2개뿐이다.

이처럼 호남 지역의 과잉 발전이 전력 계통 불안 요인이면서 제주에 이어 올해 호남에서도 태양광 발전 출력 제어가 처음으로 2차례 이뤄지기도 했다. 송·배전망 확충도 자치단체간 갈등, 주민반발과 송전 사업자인 한전의 누적적자가 발목을 잡아왔다. 정부는 핵심 전력망에 대한 국가 주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은 풍부한 바람과 일조량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전진기지다. 전남도는 8.2GW규모의 신안 해상풍력발전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국가 주도로 전국에 7개의 고속도로를 내고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했다. 정부는 고속도로처럼 해저에 국가전력망을 구축해 전기화 시대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바뀌어오지만, 호남과 다른 지역을 끼어서는 안된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은 척박한 국토 가운데 전남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이끌 '신재생 메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이렇게 외면할 텐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해야

올해도 쌀값이 폭락해 쌀 재배 농민의 한숨이 깊다고 한다. 전남은 쌀뿐 아니라 양파와 마늘, 배추 등 주요 채소의 주산지다. 애써 키운 농작물은 해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농업 생산비는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농촌, 매년 가격 불안의 위험에 무방비로 놓인 농민들의 현실이 답답하다.

통계청 산지쌀값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 기준 쌀 80kg당 가격은 19만 9280원, 25일 19만 8620원으로 계속 하향세를 기록하는 등 20만원선을 밀치고 있다. 수확기 이후 산지쌀값은 지난 10월초 80kg당 21만 7552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지난달 19만 8620원으로 내려 앉으면서 한달 새 1만 8932원(8.7%)이 떨어졌다. 더욱이 올해 쌀 재배면적이 지난해 72만 7054ha에서 70만8041ha로 2.6% 감소하고, 생산량 또한 줄어든 상황에서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1차 산업인 농업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반면 부가가치가 낮고 기후 등 외부의 환경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적정 수량을 생산해 적기에 제값을 받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농사가 안되면 그대로 손해를 보고, 풍년이 들어도 가격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농업의 현실이다. 지난 10년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지만, 타 지역의 공급 과잉 여파에 가격 하락이 반복된다는 것도 농민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 차원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해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민의 바람은 당연하지만 단순하다. 농사를 지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하루빨리 도입해 쌀을 포함해 양파, 마늘, 배추, 무 등 다른 농산물까지 범위를 확대해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농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커피값, 과자값은 다 오르는 데 쌀값만 폭락해 분통이 터진다'는 농민의 아우성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남부의 한 담배 가게에서 일회용 전자담배가 판매되고 있다. 프랑스 국회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회용 전자담배 '퍼프'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표결에 들어간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흡연 관련 질환으로 연간 사망자 숫자가 7만 5000명에 달하자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파리=AP/뉴시스

서석대

'도태(淘汰)'. 洩(도)는 '쌀을 흔들어서 쓸 것과 못 쓰는 것을 가려낸다', 汰(태)도 '흔들어서 걸러낸다'는 뜻이다. 자연이 걸러낸다. 외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자연계의 생물 개체가 점차 사라진다는 의미다. 지구는 많은 생명체들의 보고다. 대자연속에 인류를 비롯해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그중 인간은 생태계의 최상위에 자리하며 많은 생명체의 도태에 영향을 끼쳤다. 지구 생태계의 최상위층인 인류도 '도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류의 도태(淘汰)

과학계는 인류를 종말로 치닫게하는 위협요소 10가지를 선정했다. 스웨덴의 비영리단체 글로벌리진지재단(GCF)은 올해 세계인구의 10%이상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협요소로 핵전쟁·생화학전을 꼽았다. 핵과학자단체가 핵 전쟁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 설정한 '문명의 날 시계'는 현재 23시57분30초를 가르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30초가 앞당겨졌다.

개발과 산업발달에 따른 기후변화와 생태계 붕괴도 인간을 재앙으로 내몰수 있다고 봤다.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온도는 이미 1도 높아졌다. 인간의 등쌀에 1970년대 이후 척추동물 개체수는 무려 58%로 감소했다.

이밖에도 전염병, 소행성 충돌, 화산 대폭발, 태양 지구공학, 인공지능, 아직 등장하지 않은 잠재적 위험 등이 선정됐다. 하지만 인류에 닥칠 위기는 과학계의 전망을 한참 빗나갔다. 인류가 다름 아닌 저출산이라는 뜻밖의 원인으로 '소멸'에 직면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저출산율 1위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소멸 수준에 가깝다. 우리나라는 2030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소멸할 것으로 예측된다. 2050년부터 한국 경제는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영화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악당 타노스는 자원·식량 고갈에 직면한 우주를 위해 생명체의 절반이 죽어야 모두가 행복하다고 믿었다. 영국 경제학자인 토마스 맬서스가 내세운 '인구론' 역시 인구는 늘지만 식량 부족으로 인류에 비극이 찾아올 것으로 봤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인류는 과학발전을 통해 자원 고갈, 식량 부족 등을 헤쳐나가며 맬서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다. 그럼에도 인류는 저출산이라는 '자연 도태'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인류의 행복, 이젠 인구를 늘리는게 국가 생존의 필수요소가 됐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www.jnilbo.com m.jnilbo.com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